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성모 성월)
제32권 24호(나해) 2012·5·6

[묵상]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를 설레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희는 당신께 실망하기도 하고
당신이 계시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청하라고 하셨지만
아무나 청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음을,
아무 것이나 이루어 주지 않으심을,
당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
당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이 만이
청할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처럼
당신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 안에 당신께서도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저희가 욕망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라는 열매를 맺어
'나'가 아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 樞 -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해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창환 마르파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영훈 세례자요한,
특전미사	(생)심우현 & 심우석, 이원영 로즈메리 & 이원재 바오로, 정해홍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이호순 프란체스카, 이정행 테레사,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홍숙현 아가다, 이현호 요한, 박인정, 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 장현숙 발바라, 민소에 모니카, 송봉규 요셉 & 송광량 카타리나, 김용팔 다두
	(생)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글라라, 신대철 알베르토,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김옥희 바울라 & 임정자 분다 & 박명자 크리스티나 & 이귀분 안나 & 김옥찬 수산나, 유은상 안젤로, 서성용 베드로 & 서용숙 에스텔 가정, 남명자 테레사와 대녀들, 박여숙 요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9,26-31

화답송 ○주님, 큰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 이 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온 세상 끝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으로다.○

제 2독서 요한 1서(1 St. John) 3,18-2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 음 요한(St. John) 15,1-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86	186	186
봉헌	270	268	255
성체	302	296	282
파견	327	327	32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공의회와 성경해석학 : 수용할 지침

34).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계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가톨릭 주석가들의 고유한 해석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한편으로 공의회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요소들로서 문학 유형과 배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령을 통해 쓰인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계시 현장은 성경의 신적 차원을 고려하여 세 가지 근본 기준들을 지적합니다. 1) 성경 전체의 일체성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해석할 것, 2)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을 고려할 것, 3) 신앙의 유비를 고려할 것. “방법론적인 이 두 차원, 곧 역사적 비판적 차원과 신학적 차원이 존중될 때에만 신학적 주석, 이 책에 적합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현대의 역사 비평적 연구를 사용한 데에서 얻어진 긍정적 결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주석을 포함한 현재의 학문적 주석이 역사 비평적 방법론에서는 최근의 발전까지 포괄하면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계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에서 지적한 세 가지 요소들에 따른 심화가 이루어지려면 성경 본문들의 신학적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론과 세속화된 해석학의 위험성

35). 이 점에서, 오늘날 성경에 접근하는 데에서 이원론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성경에 대한 접근에서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들을 분리하거나 대립시키거나 그저 병렬시키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상호 관계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 소용도 없이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주석과 신학을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놓는 짓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가장 높은학문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염려스러운 결과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

행복의 조건

장수하는 사람과 단명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친구가 많고 적음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고, 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친구가 적은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友)테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채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 분의 일만이라도 세상 끝까지 함께할 친구들을 만들고, 확장하고, 엮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하기 위해선 많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테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 혹은 행복하게 사는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하버드대 2학년생 268명의 생애를 72년간 조사해 "행복의 조건 :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보고서"란 연구보고서를 편찬했습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이 연구에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계층의 응답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의외였습니다. 행복을 좌우한 것은 부나 학벌,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사람들이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7세 무렵까지 형성한 인간관계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연구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와 사랑

의 비결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가지는 나무의 줄기에 붙어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싱싱한 포도송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이란 줄기에 붙어있음으로 인해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섞은 가지처럼 잘려 나갈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이라는 줄기에 붙어 있는 포도가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나의 생활로 옮길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내가 존재할 때부터
너를 사랑해 왔노라.

-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채질리아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안나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성모 성월

◆ 성모의밤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 5월11일(금) 오후 7시30분

- 준비물 : 초(판매), 묵주, 미사준비
- 꽃봉헌 : 제단채 및 레지오마리에 각 프레스디움
- 가능한 한복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 세례식

- 일시 : 5월27일(성령강림대축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세례식 전례연습 : 5월23일(수) 저녁미사후
대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어린이와 대부모님도 함께 참석해주시지요.)

* 문의 : 문 밥티스타 수녀님

◆ 백삼위본당 성소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 성소자 개발과 육성을 위한 기도모임부터 출발합니다.
- 성소자를 위한 미사봉헌: 매월 첫째요일 오후7시30분
- 회장 :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제9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5월20일(주일) 오전 11시~오후5시,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렌스 동, 서, 북 구역
- 백팀 : 토렌스 남,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 : 김치냉장고(1등), TV(2등), 아이패드 및 식사권/가방 등(3등), 우승팀(가족당 쌀2포), 준우승(가족당쌀1포)
- 경품추첨대상 : 추첨진행 중 참석자로 제한,
추첨권은 당일 배포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5월 안나회 모임 임시변경

- 일시 : 오늘 주일(6일) 낮미사후, 회의실

◆ 연길 기술학교 조선족동기 북방 선교모금

- 일시 : 5월12일 토요일전미사, 13일 주일미사
- 미사집례 : 권선호 헨리코 신부(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 목적 : 미래의 북한선교를 겨냥한 교두보 역할
- 뜻있는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준비된 모금봉투를 이용해주시지요.)

◆ 본당건물 Termite 제거작업에 들어갑니다.

본당 건물 전체에 터마이트 제거작업(+ 카펫클리닝)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5월14일~18일)중 성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일미사가 없으며, 단체모임도 다른 날로 옮겨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 일시 : 6월16일(토)~23일(토), 7박8일
- 경비 : \$1,199(인사이드 기준)
- 신청마감 : 오늘 주일(5월6일)까지, 사무실

◆ 본당교우 김윤진 개인전 'The Catalina 2012'

- 일시 : 5월12일(토)~30일(수)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월셔블러바드 #502 LA)
- 오프닝 리셉션 : 5월12일 오후 3시~6시 ☎(213)365-8285

◆ 2012 FIAT장학금 신청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FIAT 재단은 매년 본당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봉사를 보여준 북미주의 한인카톨릭 학생(12학년~대학원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소 \$500이상 총 \$20,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미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FIAT웹사이트(www.fiat.org)
- 마감 : 5월27일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봉사인정프로그램 : GPA3.0 이상 9-11학년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교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6일(주일) : 소공동채(떡, 김밥 \$4)
* 주일학교(4학년 떡볶이)
- 5월13일(주일) : 마더스테이(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5학년 피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윤철 강인모 강태홍 김정웅 김관기 김정희안젤라 김정희율리아 김영경 김호순 남경희 박근식 박완철 박정희 박종열 박주현 박현주 서성용 송기철 송준규 안재만 오일순 원건희 윤화경 이경용 이근태 이병우 이상규 이현주 이형삼 아희영 익명 임한나 장영진 장준수 정훈모 최재은 최태훈 한혜숙 황인종 황지영	합계 : \$3,890
미사헌금 : \$2,912	감사헌금 : \$300	
성전헌금	강윤철 강인모 강태홍 김관기 김정희안젤라 김호순 남경희 박완철 박정희 박종열 박주현 박현주 서성용 송기철 안재만 오일순 원건희 윤화경 이경용 이근태 이병우 이상규 이현주 이형삼 이희영 임한나 장준수 정훈모 최재은 최태훈 한혜숙 황인종 황지영 리시이클링 : \$105.48	합계 : \$2,845
주보및 달력 광고후원 : \$2,950	한남체인 도네이션 : \$385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에 입을 T-셔츠 공모전
- 대상 : 신앙대회 참가자(8-12학년) * 마감 : 5월20일(주일)
 - 주제 : The Eighth Day(Isaiah 43,1)
 - 당선작 상품 : 참가비 중 \$100 공제
 - 제출 : stephanieyoonpark@gmail.com
 - 디자인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310)613-9116
- ◆ 첫영성체 교리반/부모님 모임
- 시간 : 5월13일(주일) 오전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성당2층 2학년 교실
 - 대상 : 2학년 학생및 첫영성체 교리 학생 및 부모님
 - 참가비 : \$20 * 첫영성체 예식 : 6월3일(주일)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9일(금)~7월1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 \$50(마감 5월27일/6월1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 ◆ 스투벤빌 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University of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접수마감)
 - 참가비 : \$170(디파짓 \$20 뺀 금액 no refund)
마감 : 5월20일(27일부터 \$25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 일시 :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자모회비 : \$40(가정당)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배로니카	김명제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배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5/9(수)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재영 바오로 831-8006 5/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제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제25차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 일시 : 5월10일(목)~13일(주일) 3박4일,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정광호 도미니코 신부(보스턴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총무☎(213)435-7570
- ◆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테레사 ☎(213)249-3603

성모님 공경의 이유

성지 중에 가장 큰 성지는 어디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가장 큰 성지이지만 '성모님의 태중'도 예수님이 10개월이나 머물렀던 흔적이에요. 온종의 장소로서 가장 큰 성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초기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성모님을 공경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상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흠숭과 성인의 공경을 구분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흠숭의 예를 흠숭지례(欽崇之禮)라 하고,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각별한 공경의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공경의 예를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합니다. 흠숭지례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만 유일하게 드리는 공경의 예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성모님께는 특별한 공경의 예를 드리고, 하느님을 증거한 삶을 살아가신 성인께는 존경을 드리는 공경의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호칭기도에서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하느님과 예수그리스도께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성인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성모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전구(轉求)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성모님만큼 아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한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3.51)

◆김지영 사무엘 신부/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처음 성당에 다니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입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남동생과 함께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렇게 첫영성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어릴 때에는 조부모님의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가끔 절에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어린 내 눈에는 웬지 모르게 성당 다니는 다른 친구들이 예쁜 미사보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당의 사목회장을 맡고 계시던 담임선생님께서 어느샌가 영마를 인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차례로 자연스럽게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하느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당에 열심히 다녀야 웬지 복을 받을 것 같고, 수험생이 되어 불안할 때 어딘가 기뻐할 곳이 있다는 게 좋았을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자란 울산은 당시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였기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단순한 성격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매주 주일 미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정확히 중학교 몇 학년 때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걸어서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유난히 아침 햇살이 따듯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땅도 보고 하늘도 보며 걷다 불현듯 뭔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런 기운에 휩싸이면서 가슴이 벅차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지만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저 태양처럼, 그렇게 하느님이 나도 모르게 늘 나를 지켜봐 주시고 따듯하게 안아주시고 계셨구나 하는 황홀한 깨달음이 한순간에 운몽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뒤로 나는 대부분의 날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며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그냥 그날의 기분 탓에 겪은 단순한 감정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신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증명해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난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놀라운 체험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사사롭고 막무가내인 수많은 기도에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응답해주시며 당신의 존재를 늘 내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하느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살지 않는 이상, 하느님은 언제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유독 여러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고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만큼, 내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날은 과연 언제 올 수 있을지... 오늘도 난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모자라고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 영원히...’ 라고.

◆김태희 베르다 / 배우